

# 손원일 제독의 해군건설과 수군전통 계승활동

- 총무공 이순신 중심의 계승에 주목하여 -

신 성 재\*

1. 머리말
2. 해군력 건설 추진과 총무공 계승의식의 표방
  - 가. 해군력의 가치 인식과 해방병단 창단
  - 나. 총무공 계승의식의 표방과 총무공정신
3. 총무공 중심의 수군전통 계승활동과 의미
  - 가. 최초의 군함 건조와 총무공정 명명
  - 나. 해군사관학교의 교가와 교훈 제정
  - 다. 한국해양사 편찬과 총무·한산·노량작전
4. 맺음말

## 1. 머리말

오늘날 대한민국 해군은 임진왜란(壬辰倭亂)에서 조선의 해양

\*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부교수

대표논문 : 「고려의 수군전략과 후삼국통일」, 『東方學志』 158,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2012; 「후백제의 수군활동과 전략전술」, 『한국중세사연구』 36, 한국중세사학회, 2013.

영토를 지켜낸 수군과 국난 극복의 성공으로 추앙받고 있는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후예임을 자부하고 있다. 충무공 이순신은 해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본받고자 하는 표상이요, 현대 해군의 역사 계승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70~'80년대를 거치면서 정립된 '우리는 영예로운 충무공의 후예이다'로 시작하는 해군의 다짐<sup>1)</sup>과 충무공 5대정신<sup>2)</sup>은 우리 해군이 충무공 이순신의 수군전통을 계승하였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대한민국 해군이 충무공 이순신의 수군전통을 계승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해군이 창군을 전후하여 충무공을 중심으로 하는 수군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였음을 실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6·25전쟁기의 국가적인 위기상황과 '50~'60년대 미국의 해군 제도가 도입되어 세계적인 보편성을 형성해 가던 상황 속에서도 조선 수군의 전통을 보전하고 자주적인 해군을 건설하고자 하였음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족의 정체성이 말살될 위기에 처해 있던 일제강점기에도 수군의 명맥이 단절되지 않고 해방 이후의 해군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건군 사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해군 창설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손원일(孫元一) 제독이 해군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충무공 중심의 수군전통을 계승한 사실에 주목하여 그 과정을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하였다.

1) 해군의 다짐에 대한 변천과정은 海軍本部, 『海軍史』 9집 下권, 1980, 830쪽; 대한민국 해군, 『반세기를 넘어서 - 海軍 政訓50年史』, 해군본부 정훈공보실, 1990, 186~188·217~221쪽 참조.

2) 충무공 5대정신의 제정과 변천은 이은상, 『성웅 이순신』, 민족문화협회 부설 햇불사, 1969, 195~222쪽; 해군본부, 『충무공 정신교육교재(특별 정훈교육교재 83-1)』, 1983, 209~212쪽 참조.

손원일 제독을 학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대체로 그의 일대기에 대한 조명을 시작으로 창군기의 활약과 해군력 건설, 창군에 깃든 정신, 사상과 리더십 등에 이르기까지 연구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일대기를 다룬 성과로는 1976년 9월 26일부터 동년 12월 21일까지 한국일보에 연재된 이력서<sup>3)</sup>와 그의 미망인인 홍은혜(洪恩惠) 여사가 1990년에 이력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엮어낸 회고록<sup>4)</sup>, 그리고 최근 손원일 제독의 일생 전반을 회고록과 창군기의 해군자료 등에 기초하여 정리해낸 전기가 있다.<sup>5)</sup> 창군기의 활약과 해군력 건설을 다룬 연구에서는 해방 직후 해사대(海事隊)를 조직하는 시점부터 '50년대 말 서독대사 시절까지의 주요 활동상과 6·25전쟁기까지 추진된 일련의 해군력 건설 내용을 다루고 있다.<sup>6)</sup> 이러한 성과들은 손원일 제독의 탄생으로부터 성장 과정, 창군기를 전후한 해군활동과 해군력 건설, 국방부장관 시절의 군사외교활동, 전역 이후의 공직자 생활 등에 이르기까지 일대기 전반을 다루고 있어 손제독의 삶 전체는 물론 현대 해군 건설에 끼친 그의 업적을 이해하는데 있어 유용하다.

창군정신과 관련한 성과는 손원일 제독이 해군을 창설하는 과정에서 표방한 창군정신의 요체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명하고 현대적인 의미와 적용 방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sup>7)</sup> 이와 함께

3) 孫元一, 「나의 履歷書」, 『한국일보』, 서거(1980년 2월 5일)하기 불과 4년 전에 작성된 것으로, 1편 '아버지의 변신'에서부터 55편 '공직생활 청산'까지 연재되었다.

4) 홍은혜 엮음, 『우리들은 이 바다 위해』, 가인기획, 1990.

5) 오진근·임성채, 『해군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상·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6) 임성채, 「손원일 제독의 창군기 활약과 주요업적」; 이춘근, 「창군기의 해군력 건설 과정」(『손원일 제독의 생애와 업적 재조명: 손원일 제독 탄신 100주년 기념 제30회 해양학술세미나』, 해군사관학교, 2009 수록).

7) 윤명철, 「손원일 제독 해군 창군정신의 현대적 재조명」, 『손원일 제독의 창군정신

손원일정신으로 대표되는 창군정신의 개념적 모형을 추출하고, 그 의미를 6·25전쟁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행된 주요 해군작전 및 해군건설 사례와 접목하여 살펴본 성과가 있다.<sup>8)</sup> 리더십에 주목한 성과로는 손원일 제독의 창군정신을 소개하고 현대 리더십 이론에 기초하여 해군 리더십 모형과 손원일 리더십 모형의 특징을 비교 분석한 것이 있다.<sup>9)</sup> 또 손원일 제독의 생애와 사상을 개괄적으로 다루면서 그의 리더십이 20세기에 형성된 것이지만 오히려 21세기형에 가까운 선구자적인 리더십이었다고 평가한 견해도 제시되었다.<sup>10)</sup> 이 성과들은 역사적인 사실과 이론에 기초하여 손원일 제독이 표방한 창군정신의 개념과 의미를 새기고, 그의 리더십 형성의 사상적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며, 또한 현대 리더십 모델과의 적용 가능성 등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를 갖는다.<sup>11)</sup>

하지만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창군 주체들의 구성과 해군 활동과 관련한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고<sup>12)</sup>, 손원일 제독의 해군 건설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

과 한국 해군력 발전 : 제13회 함상토론회 발표자료집』, 2009.

- 8) 이기현·김정환, 「창군정신에 관한 연구」, 『教育發展』 34, 海軍教育司令部, 2013.
- 9) 이기현, 「창군정신과 손원일 리더십 연구」, 『海洋研究論叢』 44, 海軍사관학교, 2013.
- 10) 서상문, 「21세기형 리더십의 20세기 顯現 - 孫元一 제독의 생애와 사상 발전」, 『군사논단』 61, 한국군사학회, 2010.
- 11) 이 밖에 최근 손원일 제독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그가 남긴 유품을 중심으로 구성한 도록이 출판되어 도움이 되고 있다.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탄신 100주년 손원일 제독 특별전 기념도록 -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 유품으로 보는 해군의 발자취』, 2009.
- 12) 창군 주체들의 출신과 구성, 해군활동에 대해서는 김재승, 「한국해운 여명기 (1946~1953) 해운과 해군의 협력」, 『해양정책심포지엄』, 대한민국 해양연맹, 2004; 한성호, 『근대 해군 육성 노력과 한국해군 창설 주체에 대한 재고』,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참조.

특히 대한민국 해군이 충무공 이순신의 호국정신(護國精神)<sup>13)</sup>과 조선 수군의 전통을 계승하였다고 자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군이 그와 같은 전통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 계승하였는지 역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성과는 전무하다.

이 글에서는 기왕의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손원일 제독의 해군 건설과 충무공 이순신을 중심으로 하는 수군전통 계승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먼저 해방을 전후하여 형성된 손원일 제독의 해양 인식과 해군력 건설에 대한 가치 인식을 살펴보고 그것이 창군의 모체인 해방병단(海防兵團) 창단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손원일 제독이 창군과 동시에 충무공 계승의식을 표방하고 ‘충무공정신’을 해군 장병들이 실천해야 할 지침으로<sup>14)</sup> 내세웠던 사실에 주목하여 그 배경과 의미 등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그런 다음 손원일 제독이 충무공을 중심으로 하는 수군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추진하였던 주요 해군활동을 다룰 것이다. 군함 건조와 충무공정 명명, 해사 교가와 교훈의 제정, 한국해양사 편찬, 6·25전쟁기에 수행하였던 충무·한산·노량작전의 명명 배경과 의미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우리 해군이 해방 이후에도 충무공 중심의 수군전통을 계승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일제강점기의 노력과 활동을 중심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13) 林元彬, 「‘해군정신’ 연구」, 『海洋研究論叢(Ⅰ)』, 海軍士官學校 海軍海洋研究所, 2003, 132~136쪽.

14) 당대의 기록에는 격어(激語)로 나타난다(해군 정훈감실·해병정훈감실, 『해군』 5~7월호, 1953).

## 2. 해군력 건설 추진과 충무공 계승의식의 표방

### 가. 해군력의 가치 인식과 해방병단 창단

1945년 8월 15일에 맞은 해방은 전 민족적인 감격과 환희, 그리고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우리 민족 앞에는 조속히 자주 정부를 수립하여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제반 사회경제적 모순과 문화적 질곡을 청산해야 하는 신국가 건설의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다.<sup>15)</sup> 자주적인 신국가 건설의 과제에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를 보전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군대의 육성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주지하듯이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군대는 1907년 8월 1일자로 일본 제국주의가 수립한 치밀한 계략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산당하였다.<sup>16)</sup> 일제는 군대 해산을 기점으로 대한제국에 대한 무력적 지배정책을 급속도로 추진하였고, 마침내 1910년에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강제 병합하였다. 일제강점기는 국권을 탈취당한 민족 최대의 수난기이자 국가의 운명이 위기에 처해 있던 시기였다. 하지만 뜻 있는 민족 지도자들의 저항과 국권회복 활동, 애국계몽 단체들의 독립의식 고취 활동, 3·1운동으로 대표되는 조선 민중들의 거국적인 봉기, 임시정부 요원들의 국내외 독립운동, 만주와 북간도 지역을 거점으로 활약한 무장 독립군의 항일 투쟁 등에 힘입어 점차 독립의 길을 모색해가던 희망과 가능성이 공존하던 시대였다. 독립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가

15)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227쪽.

16)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 과정은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해안, 2000, 258~280쪽; 심현용, 『한말 군 근대화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277~294쪽 참조.

패망하면서 실현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를 극복한 해방 공간에서 국가의 독립을 보전할 군대의 확보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대한 과제였다. 1945년 11월 미 군정청(軍政廳)에 등록된 군사단체가 무려 30여개나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sup>17)</sup> 국가방위를 수호하는 군대의 육성이 절실하였던 시대적 분위기를 잘 반영한다. 해군의 건설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모색되고 있었다. 특히 개항기를 거치면서 심화된 외세의 침탈이 해양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대한제국이 추진하던 근대 해군 건설 노력이 좌절되면서<sup>18)</sup>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던 점을 상기한다면 바다를 방위할 해군력은 무엇보다도 조속히 건설해야 할 국가적인 과제였다. 이를 실현할 꿈을 품고 해방을 맞은 조국으로 돌아오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손원일 제독이었다.

손원일 제독은 해양을 둘러싼 세계사의 흐름을 일찍부터 간파하고, 독립될 조국의 미래가 해양에 달려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다.<sup>19)</sup> 상해(上海) 남경(南京) 중앙대학(中央大學) 농학원(農學院) 항해과 유학 시절을 보면, “바다에는 미래가 있다. 지금은 빼앗긴 나라이지만 언젠가 나라를 되찾는 날은 우리도 해양으로 뻗어나 가야만 한다”<sup>20)</sup>고 다짐하는 기록이 나온다. 비록 짙막한 기록이기는 하지만, 손원일 제독이 독립될 조국의 운명을 해양에서 찾고, 국가의 번영과 발전이 해양력에 의해 좌우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17) 韓鎔源, 『創軍』, 搏英社, 1984, 26쪽.

18) 대한제국기 고종의 해방력 강화와 근대 해군 건설 노력은 金在勝, 『韓國近代海軍創設史 - 구한말 고종시대의 근대식 해군과 군함』, 혜안, 2000 참조.

19) 대한민국해군, 『해군장교 리더십-성찰 그리고 실천』, 2007, 35쪽.

20) 孫元一, 「나의 履歷書」, 『한국일보』, 1976년 10월 22일. 중국의 중앙대학 항해과에서 수학하던 기간은 1927~1930년간으로 손원일의 나이는 대략 18~21세였다.

손원일 제독의 해양에 대한 인식은 6·25전쟁이 종료된 직후인 1954년 4월 5일에 발행된 『대한민국해군사』 제1집의 서문을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해양으로의 진취성이 강한 민족은 융성하고 약한 나라는 쇠퇴의 길을 밟아 왔다는 사실은 과거의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다. ‘해양을 제패하는 자는 세계를 제패한다’는 말은 이 사실을 갈파한 것이다.”<sup>21)</sup> 이는 유학 시절에 나타나는 해양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여 보다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준다. 유학시절의 인식이 다소 관념적이며 추상적이라면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는 한층 구체적이며 확신에 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해양 진출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해 왔던 역사적 사실을 학습 과정을 통해 체계화하고, 마한(Alfred Thayer Mahan : 1840~1914)이 제창한 해양을 제패하는 자가 세계를 제패한다는 해양력 이론을 제시한 점은 해양에 대한 가치 인식이 보다 명확해졌음을 보여준다.<sup>22)</sup> 그렇기에 손원일 제독에게 있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해양력을 뒷받침하는 해군력 건설은 너무나도 절실한 것이었다.

손원일 제독의 해군력에 대한 가치 인식은 1953년 7월 5일자 로 작성된 참모총장 이임사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번에 비상 시국하의 국방의 책임자로서 그 직을 맡게 됨에 지식이 적고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본인이 차지하게 됨을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대통령 각하께서 나에게 국방을 맡아달라는 말씀이 계셨으나, 그때는 국방보다

21)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大韓民國海軍史』, 行政編 第1輯 序文, 1954, 9쪽. 책자는 1954년 4월 5일에 발행되었지만, 서문의 내용은 동년 3월 1일로 기록되어 있다.

22) 서문의 내용으로 보아 손원일 제독이 마한의 이론을 학습하였을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남겨진 자료에서는 그가 어느 시기에 또한 어떠한 학습과정을 거쳐 마한의 해양력 이론을 접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연구를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해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 건설에 있어 모든 면이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해군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발전에는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만 무진장한 바다를 개척하고 바다에서 발전한다면 국내는 자연적으로 따라 오고 위신을 날릴 수 있다는 점에 있었던 것입니다.<sup>23)</sup>

위는 1954년 7월 5일자로 작성된 손원일 제독의 참모총장 이임사 중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sup>24)</sup> 이임사의 내용이 말해주듯이, 손원일 제독은 이승만 대통령이 누차 국방부장관의 직무를 맡아 달라는 권유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양하였다. 손제독이 장관직을 사양한 이유는 국가 건설과 발전에 있어 해군력 건설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고 우선해야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국가 건설에 있어 모든 면이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해군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 이유는 무진장한 바다를 개척하고 바다 경영을 통해서 발전한다면 국내에 산적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국가의 위신을 날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 해군력의 가치를 우선시할 만큼 독립된 조국의 미래가 해군력을 여하히 건설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손원일 제독은 해군력 건설의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그 시급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에 착수하였다. 해방된 지 불과 5일 만인 8월 20일에 창군의 뜻을 품고 연희전문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이던 유억겸(俞億兼)을 찾아간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당시 유억겸은 손원일의 큰 자형인 윤치창(尹致昌)과 가까운 사이

23) 해군본부 정훈감실, 「이임사(1953년 7월 5일)」, 『역대 해군참모총장 훈시문집』 제 1집, 1971, 19쪽.

24) 이임사의 날짜는 7월 5일로 표기되었지만, 실제 이임식은 6월 30일에 거행되었다(서상문, 2010, 앞의 논문, 146쪽).

였다. 손원일의 해군 건설에 대한 원대한 포부를 듣고 난 유억겸은 즉석에서 민병증(閔丙曾)을 소개해주면서 서로 뜻이 잘 맞을테니 협력을 해보라고 했다.<sup>25)</sup> 손원일은 곧바로 민병증을 찾아가 협력을 구한 다음 해군 창설에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또 김영철(金英哲), 정공모(鄭兢謨), 변택주(邊宅周)와도 의기를 투합하여 8월 21일에는 해군 건설의 초석이 될 해사대(海事隊)를 결성하였다.<sup>26)</sup> 이틀 뒤인 8월 23일에는 안국동의 안동예배당에 현판을 내걸고 그곳을 해사대 본부로 정했다. 이후 해사대는 9월 30일경에 조선해사협회(朝鮮海事協會)로 개칭되었고, 마침내 11월 11일 11시에 미 군정청 고문 이동근(李東根)과 해사국장 미 육군소령 칼스텐(Carsten), 대원 7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손원일 제독을 단장으로 하는 해방병단의 창단식을 가졌다.<sup>27)</sup>

해방병단의 창단은 대한민국 해군의 모체이자 전신으로서<sup>28)</sup> 건군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조선 수군이 1894년 7월 15일에 폐지된 지 51년 3개월 26일 만에 다시금 해군으로 탄생하였던 점에서나, 3군 중 가장 먼저 창군의 주춧돌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sup>29)</sup>

이와 함께 손원일 제독에게 있어 해방병단의 창단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흥망을 좌우

25) 孫元一, 「나의 履歷書」, 『한국일보』, 1976년 11월 19일.

26)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1954, 앞의 책, 17쪽. 해사대 결성시 주요 참여 인물로 변택주가 아닌 한갑수를 거론하기도 한다(오진근·임성채, 2006, 앞의 책, 27~28쪽). 여기에서는 손원일의 이력서(『한국일보』, 1976년 11월 19일)에 근거하여 변택주로 서술한다.

27) 창단 시 직책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단장 손원일, 일반행정 민병증, 항해교육 김영철, 기관교육 정공모·석은태, 군사훈련 변택주·김정주, 경리 석은태(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1954, 앞의 책, 20쪽).

28)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1954, 앞의 책, 19~20쪽.

29) 오진근·임성채, 2006, 앞의 책, 36쪽.

함에 있어 실질적인 힘이 되는 해군력을 건설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러한 인적 기반에 토대하여 일제강점기에도 이어지고 있던 조선 수군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해양방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함정의 건조와 부대를 조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큰 것이었다.<sup>30)</sup>

#### 나. 충무공 계승의식의 표방과 충무공정신

손원일 제독은 해방병단을 창단하여 해군력 건설을 추진함과 동시에, 해군의 역사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손원일과 함께 해사대 조직의 핵심 멤버로 활약한 정궁모가 해군 장병들을 모집하기 위한 붙인 벽보의 내용 속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손원일 제독은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 21일에 민병증과 함께 대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조국의 광복에 즈음하여 앞으로 이 나라 해양과 국토를 지킬 뜻 있는 동지들을 구함”<sup>31)</sup>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이고 다녔다. 그런데 같은 날에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키자. 조국의 바다를 지켜 나갈 충무공의 후예를 모집함”<sup>32)</sup>이라는 문구의 벽보를 붙이던 정궁모와 만나게 되었다. 손원일과 정궁모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벽보를 붙였는지는 알 수 없다.<sup>33)</sup> 양자가 붙인 벽보의 내용에도 문구상 차이가

30) 이후 해방병단은 1946년 6월 15일에 공포된 군정법령 제86호에 의거하여 조선해안 경비대로 개칭되었고,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대한민국 해군으로 발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1) 孫元一, 『나의 履歷書』, 『한국일보』, 1976년 11월 19일.

32) 오진근·임성채 공저, 2006, 위의 책, 25쪽. 동일한 내용의 벽보에 대해서는 함명수, 『바다로 세계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7, 24쪽 참조.

33) 오진근·임성채 공저, 2006, 위의 책, 27쪽.

있다. 그러나 “같은 뜻을 품었으니 서로 손잡고 일해 나가자”<sup>34)</sup>며 해군 창설에 대해 맹세를 하였고, 해양을 바라보는 안목과 현실 인식 또한 비슷한 입장이었을 것임을 감안한다면 양자가 붙인 벽보는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sup>35)</sup>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손원일 제독이 구하고자 하던 이 나라 해양과 국토를 지킬 뜻 있는 ‘동지들’은 바로 정공모가 모집하고자 하던 조국의 바다를 지켜 나갈 ‘충무공의 후예’와 동일한 존재인 셈이다. 손원일 제독이 해사대를 결성하던 시점부터 장차 해군을 이끌어갈 구성원들을 충무공의 뒤를 잇는 후예로 인식하였음을 짐작케한다.<sup>36)</sup>

해군이 창군기에 충무공 이순신을 본받아야 할 선배이자 또한 그의 후예로 인식하였음은 당대의 기록을 통해서도 곧잘 확인된다. 해방병단의 참모장이었던 민병증이 1946년 4월 초에 훈련에 임하는 대원들의 진지한 태도를 보면서 “이충무공을 선배로 모신 우리 동포들은 이 방면에서도 특이한 소질을 발휘하여 사격술이나 기관 수리는 교관을 놀라게 하며 로프 작업은 현재에도 세계에서 제일이다”<sup>37)</sup>라며 자랑스러워한 대목이 그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 진해에서 군함을 시찰하던 중에 목격하였던 어느 이름 모를 병사의 침상에 새겨진 문구 또한 그러하다. 당시 이 대통령이 목격한 침상에는 “본받자 충무공을, 찾아오자 우리 바다”<sup>38)</sup>라고 하는 문구가 씌여 있었다. 자나 깨나 충무공을 모범삼아 우리 바다를 지키고자 염원하던 병사들의 강렬한 수군전통 계승

34) 해군본부, 『해군일화집』 제1집, 2006, 1쪽.

35) 海軍士官學校, 『大韓民國 海軍士官學校史 1946~1980』, 1981, 46쪽.

36)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해군의 숭배전통이 해사대를 설립하던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金州植, 「해군의 창설과 발전」, 『군사』 6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217쪽).

37) 「明日의 大海軍을 目標로」, 『자유신문』, 1946년 4월 8일.

38) 「忠武公을 따르자 - 李大統領의 觀覽 所懷」, 『조선중앙일보』, 1949년 8월 26일.

의식을 살필 수 있다.

손원일 제독이 해군 구성원을 충무공의 후예로 인식하였음은 조선 수군의 전통을 창군기의 해군이 계승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은 김성삼(金省三) 제독이 창군기를 회고한 글을 통해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감격의 해 난관의 해가 새고 4279년 1월 14일 군정법령 제42호가 공포된 후의 우리 해방병단은 국방사령부 군무국에 편입케 되어 同局 후기나 미 해군소령의 지시를 받게 되어 겨우 일시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다. 이로써 정규 군사단체로의 인정을 받게 되었으니 단원 일동은 손제독과 더불어 임진 국난을 도맡아 구국하신 충무공의 위업을 계승하여 국토의 수호를 손을 높이 들어 맹서하였던 것이다. 대해군 건설이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삼가 이 몸을 바치나이다’라는 표어 아래 ‘충무공정신에 살고 충무공정신에 죽자’고 굳게 맹서하였던 것이다.<sup>39)</sup>

위 글은 김성삼 제독(준장)이 1951년 6월 1일에 자신의 해군생활을 회상하며 『해군』 창간호에 기고한 내용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손원일 제독을 단장으로 하는 해방병단은 단기 4279년(1946년) 1월 14일 군정법령 제42호가 공포된 뒤 국방사령부에 편입되면서 합법적인 군사단체로 승인받게 되었다. 정식 군사단체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손제독은 단원들과 함께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충무공 이순신의 위업을 계승하여 국토를 수호할 것을 맹세하였다. 손원일 제독이 창군과 더불어 해군 구성원들이 본받아야 할 역사적 인물로 임진

39) 金省三, 「우리 海軍의 걸어온 길 - 나의 海軍生活의 回想을 中心으로」, 『海軍』 創刊號(제1권 1호), 海軍恤兵會出版部, 1951, 28쪽.

왜란기에 국난을 극복한 충무공 이순신을 중시하고, 충무공이 이룩한 업적과 국토 수호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였음을 말해준다.

손원일 제독이 충무공 중심의 수군전통을 계승하였음은 이어지는 기록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대해군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삼가 이 몸을 바치나이다’라는 슬로건을 표방하고, 그 슬로건 아래 ‘충무공정신에 살고 충무공정신에 죽자’는 굳은 맹세를 하였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대체로 손원일 제독이 내세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삼가 이 몸을 바치나이다’라는 문구는 1948년 해군 총참모장에 임명된 후 장병들이 가져야 할 정신적인 지표의 필요성을 느껴 창군 이념으로 표방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여섯 개의 지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0)</sup> ‘군인은 충무공정신에 살고 충무공정신에 죽자’는 지침은 창군 이념을 뒷받침하는 다섯 번째 지침에 해당한다.<sup>41)</sup> 그런데 손원일 제독이 1946년 1월 초에 창군 이념을 표방하고 충무공정신을 그 실천 지침으로 정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김성삼 제독의 기고문 내용은 손 제독이 총참모장에 임명되는 1948년의 사실로 이해하는 입장과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남겨진 자료만으로 손원일 제독이 어느 시점에 창군 이념과 충무공정신을 포함한 여섯 개의 실천 지침을 표방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1947년 10월 21일에 제정된 해군사관학교 교훈 중 ‘희생하자’의 덕목이 ‘충무공정신과 조국수호’<sup>42)</sup>의 내용을 담고

40) 해군사관학교,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50년사』, 1996, 46쪽.

41) 당대의 기록에는 실천 지침이라는 표현이 아닌 장병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의지를 고양시키는 격어(激語)로 명명되었다. 나머지 격어는 다음과 같다. ① 군인은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경애하자. ② 군인은 명령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자. ③ 군인은 명량활발하고 신의를 지키자. ④ 군인은 정치담을 말고 도벌담을 폐지하자. ⑥ 군인은 관품을 애용하고 물자를 절약하자.

42) 海軍士官學校, 1981, 앞의 책, 77~78쪽.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1947년 11월 11일에 거행된 해군 창설 2주년 기념식에서 손원일 제독이 충무공정신을 강조한 사실도 주목된다. “우리의 각오와 포부는 충무공의 정신을 계승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으로서 오로지 조국 광복과 용성의 초석이 될 것을 서약하는 바입니다.”<sup>43)</sup> 손원일 제독이 총참모장에 임명되기 이전부터 충무공정신을 해군이 계승해야 할 핵심적인 이념으로 중시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서 보아 충무공정신은 1946~47년 단계에 장병들간에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던 이념이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1948년 이후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삼가 이 몸을 바치나이다’라고 하는 창군 이념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이를 실천하는 하나의 지침으로 정립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손원일 제독에게 충무공정신은 무엇이였을까. 아래 기록을 보자.

제군은 이 국란을 몸으로 쓰리게 겪지 않았다할망정 마음으로 정신으로 아플만큼 아프게 겪어왔다. 그리고 3년 동안 몸으로 단련을 받았다. 그리하여 3년 전 이 교문에 들어설 때의 제군과 3년 후 오늘에 나가는 제군들과는 스스로 다른 그 무엇이 있음을 제군 자신은 발견할 것이다. 그 무엇이란 무어냐? 이것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제군이 앞으로 실적에 말없이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더 말할 것 없이 충무공이 몸소 겪으신 국난과 같은 국란을 겪으면서 『충무공의 정신에 살고 충무공의 정신에 죽자』는 교훈 밑에 수련된 충무공정신의 발현인 것이다. 충무공정신이란 무어냐? 나라를 위하여 몸을 잇는 것 『忘身殉國』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 몸을 삼가 바치자는 이 한마디에 그치는 것이다. 교문을 떠나서는 제군 정도에, 나아가 용사 제군에게 다만 하나 선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말 한마디뿐이다.<sup>44)</sup>

43)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1954, 앞의 책, 54쪽.

44) 해군본부 정훈감실, 「제군은 충무공정신에 살았다 - 해사 제7기생 졸업식 훈시

위는 손원일 제독이 1953년 5월 30일에 거행된 해사 7기생 졸업식에서 연설한 훈시문에 수록된 내용이다. 손원일 제독은 임관하는 7기생들을 대상으로 한 훈시문에서 충무공정신란 무엇인가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에 따르면 충무공정신은 한마디로 말해 ‘나라를 위하여 몸을 잊는 것, 즉 망신순국(忘身殉國)의 자세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 몸을 삼가 바치자’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손원일 제독이 해군을 창설하면서 표방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삼가 이 몸을 삼가 바치나이다’라는 창군 이념과 망신순국으로 함축된 충무공정신을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손원일 제독이 내세운 창군 이념이 충무공 이순신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말해준다.<sup>45)</sup>

“교문을 떠나서는 제군 정도에, 나아가 용사 제군에게 다만 하나 선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말 한마디뿐이다” 라며 망신순국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 몸을 바칠 것을 당부한 것은 졸업하는 7기생 모두 충무공정신을 계승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줄 것은 강조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손원일 제독은 충무공정신을 창군기의 해군이 계승해야 할 핵심 이념이자 실천적 지침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손원일 제독이 고대로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와 근현대 시기까지 이어져 온 수군의 전통을 충무공을 중심으로 정립하고, 이를 계승하고자 하였음을 의미한다. 사실 창군기의 해군이 계승해야 할 수군전통의 핵심적인 이념으로 충무공정신이 탄생하기까지는 역사적으로 그 연원이 꽤나 오래된 것이었다. 해방병단 창설식에 즈음하여 “청해대사(淸海大使) 궁복(弓福) 장군이 호령하는 바다, 삼도수군

(1953년 5월 30일), 『역대 해군참모총장 훈시문집』 제1집, 1971, 18쪽.

45) 공정식, 「해군·해병대에 깃든 손원일 제독의 창군정신」, 『전략논단』 15, 해병대 전략연구소, 2012, 16쪽.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을 하던”<sup>46)</sup> 바다를 다시 찾은 감격적인 표현을 통해 보듯이, 그 연원은 멀게는 통일신라 말기에 서남해역의 해상권을 장악하여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주도하였던 청해진대사 장보고(張保臯)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장구한 것이었다.

손원일 제독이 해방과 동시에 해군 건설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해군 구성원이 사표로 삼아야 할 인물로 충무공 이순신을 설정하고, 그가 실천한 망신순국의 자세를 충무공정신으로 구체화하여 해군이 계승해야 할 전통의 중심으로 표방한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손원일 제독은 해방된 조국의 영속적인 독립 보장과 국가의 미래가 해양력에 달려 있음을 일찍부터 간파하고 있었다. 또한 해양력의 궁극적인 힘이 해군력 건설에 따라 좌우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임진왜란에서 조선왕조를 구하여 독립된 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전시키고, 강력한 수군력을 바탕으로 서남해역의 해상권을 장악하였던 충무공 이순신은 그가 이룩하고자 하던 해군 건설의 구심적인 인물로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망신순국,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충무공정신은 창군될 해군 구성원이 계승해야 할 수군의 전통으로 표방되기에 적합하였던 것이다.<sup>47)</sup>

46) 『太極旗 밑의 우리海軍』, 『동아일보』, 1946년 1월 2일.

47) 충무공정신은 '60~'70년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해군의 정신적 이념으로 끊임없이 계승되고 있다. 1968년 해군참모총장에 재직 중이던 김영관 제독은 '충무공정신 이어받아 조국의 방패되자'를 지휘방침으로 정하였다(백구부대 공보실, 『백구』 創刊号, 1968 참조).

### 3. 충무공 중심의 수군전통 계승활동과 의미

#### 가. 최초의 군함 건조와 충무공정 명명

손원일 제독은 충무공의 후예임을 천명하고, 충무공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중에서 조국의 바다를 지켜나갈 군함을 건조하여 충무공정(忠武公艇)<sup>48)</sup>으로 명명한 것은 대표적인 쾌거였다.

여러 자료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충무공정은 일본 해군이 1944년 9월 14일에 경비정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착공한 군함이었다. 그러나 일제가 2차세계대전에서 패망하게 됨에 따라 공사는 자연스럽게 중단을 맞게 되었다.<sup>49)</sup> 이후 충무공정은 1946년 7월 17일에 이르러 장호근(長縞根) 대위를 비롯한 배화상, 윤태운, 박영봉, 홍윤도, 광정수 등<sup>50)</sup> 한인 기술자들의 혼신어린 건조 노력에 의해 진수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47년 2월 7일에 완성을 보게 되었다.

충무공정은 건조될 당시 전장 46미터에 배수량 260톤, 항속거리 450마일, 최대 속도 19노트에 불과한 소형 군함이었다. 그러나 “비록 300톤급 미만의 작은 함정일망정 우리는 빈약한 것에 조금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sup>51)</sup>고 자랑스러워할 만큼 이 함정의 건조가 갖는 의미는 각별한 것이었다. 그 의미는 “제작에 있어

48) 여러 기록을 통하여 함정의 명칭이 ‘충무공정’이 아닌 ‘충무공호’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조된 함정이 군함이므로 이하에서는 ‘충무공정’으로 통일하여 서술한다.

49)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1954, 앞의 책, 37쪽.

50) 해군본부, 2006, 앞의 책, 49~50쪽에는 배화상·박봉우·배몽상·윤태운·이금식 등으로 나온다.

51) 「빛나는 우리 海岸警備隊의 활약」, 『서울신문』, 1947년 2월 11일.

외인의 손을 전혀 빌리지 않고 온전히 우리 손으로 만 1년 만에 준공을 보게 된 해방 이후의 첫 작품”<sup>52)</sup>이라는 점에 있었다. 충무공정이 독립된 조선인들 스스로의 자주적인 역량에 의해 최초로 건조한 군함이라는 사실 속에서 강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1947년 2월 7일 조선해안경비대(朝鮮海岸警備隊) 총사령관이었던 손원일 제독과 군정장관(軍政長官) 러취(Archer L. Lerch), 통위부장(統衛部長) 유동열(柳東悅)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함정에 대한 명명식이 거행되었다.<sup>53)</sup> 함정의 명칭은 임진왜란 때에 왜적을 물리쳐 그 이름을 전사상에 길이 빛낸 이순신의 시호를 따서 ‘충무공정’으로 명명되었다. 초대 지휘관에는 박홍철(朴弘哲) 중위가 임명되었다. 충무공정의 지휘관은 명명식 직후 정장으로 호칭되었다. 그러나 이후 해군의 기함인 충무공정의 지휘관을 ‘정장’이라 호칭하는 것은 나라의 체면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비록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함장’으로 불리곤 하였다.<sup>54)</sup>

손원일 제독이 함명을 충무공정으로 명명한 것은 “임진왜란 당시 이 바다에서 7백 척의 왜선을 무찔러 버린 이순신 장군의 뒤를 이을 수많은 바다의 용사를 길러내기 위하여 그 이름도 충무공호라고 하였다”<sup>55)</sup>고 하는 것처럼 충무공의 뒤를 잇는 해군 용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장병들로 하여금 충무공 이순신이 이룩한 업적과 백전불굴의 전통을 함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sup>56)</sup> 손원일 제독이 충무공을 계승하는 용사를 양성하고 수군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였음은 동일한 날짜에 발간된 『대동

52) 「三百噸警備船竣工! 忠武公號로 命名」, 『조선일보』, 1947년 2월 4일.

53)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1954, 앞의 책, 38쪽.

54) 함명수, 2007, 앞의 책, 245쪽.

55) 「구호는 忠武公을 따라」, 『자유신문』, 1947년 2월 12일.

56) 「우리 海岸警備隊의 눈부신 活躍」, 『동아일보』, 1947년 2월 12일.

신문』의 사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그들은 이번 이충무공의 위훈과 전통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그들의 손과 그 칼의 힘으로써만 삼백 톤의 경비선을 진수시킨 것이다. 이것은 조선의 처음된 일이며 더욱 일찍이 왜적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존호를 명명한 것은 새로이 출발하는 가까운 장래의 조선 해군을 위하여 힘찬 의의를 주는 것이다. 더욱 기대할 것은 전통을 살릴 그들 조선의 젊은이들이 지금부터 여하히 노력하는가에 달린 것이다. 그들 젊은이들은 말하였다. 역사와 전통을 세우고 살리는데는 불굴의 의지와 모든 청년의 정열을 바쳐 노력하는데서 산출되는 것이다. (중략) 임진왜란의 예전에 우리의 선조가 미증유의 국난을 앞에 놓고 과연 그 비장한 결심은 무엇이었을까? 이 몸을 바쳐 왜적을 물리치지 않았던가. 그는 3백 년 전에 침공한 7백여 척의 왜선을 한산도 구렁이에서 전멸시킨 것이다. 세상에 유명한 制勝戰法의 역사와 피 흘린 선조의 영혼이 사모친 이 바다를 그 전통을 계승한 자손들이 이제 그 역사를 심고 지나가는 것이다.<sup>57)</sup>

위 기록을 통해 보듯이, 진수된 경비선은 이충무공의 위훈과 전통을 계승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조선 해군을 위하여 힘찬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 의미는 바로 창군기의 해군 구성원 스스로 충무공이 이룩한 위업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임진왜란기에 활약한 조선 수군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조선의 젊은이들이 충무공정을 건조한 시점부터 여하히 노력하고 정열을 바치는가에 달린 것이었다. 함정에 대한 명명식을 마친 다음날 손원일 제독을 비롯한 해안경비대원들은 충무공정에 승합하여 이충무공의 충혼을 모신 통영으로 향해하여 충렬사(忠烈祠)를 참배하였다.<sup>58)</sup> 충무공의 후예로서 수군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57) 「李舜臣將軍號의 命名!」, 『대동신문』, 1947년 2월 12일.

58) 「씩々한 忠武公號의 進水」, 『서울신문』, 1947년 2월 11일.

행보를 내딛은 것이었다.<sup>59)</sup>

충무공정은 대외적으로 해군이 이순신의 수군 전통을 계승한 후예임을 알리는데에도 기여하였다. 손원일 제독이 함명식을 마치고 약 2개월 뒤에 실시한 이충무공 선양 행사를 통하여 그러한 면을 살필 수 있다. 즉 손제독은 충무공이 탄생한 4월 28일을 민족의 기념일이자 바다의 성웅을 기념하는 날로 기리기 위하여 민중들을 대상으로 함정을 관람케하는 관함식을 거행하였다.<sup>60)</sup> 당시 손 제독이 관람토록 지명한 함정 가운데에는 충무공정이 포함되었다. 충무공정의 위상과 상징성은 참가한 관람객들로 하여금 해양사상 고취와 민족정신 양양에 큰 효과를 보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관함식에 위용을 드러낸 충무공정의 존재를 통하여 인접한 함정에 승조한 장병들 역시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요, 그가 이룩한 수군 전통을 계승하는 존재임을 자각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한편 첫 번째 충무공정이 명명된 뒤로부터 약 4년여의 기간이 흐른 뒤인 1951년 8월 25일, 또 하나의 충무공정이 해군에 인수되었다.<sup>61)</sup> 그로부터 6일 뒤인 8월 31일,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신익희 국회의장, 무초 대사를 비롯한 다수의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함정에 대한 명명식이 거행되었다. 함정의 명칭은 충무공정을 이어 제2충무공정(PG-315)으로 명명되었다.<sup>62)</sup> 함정의 명칭을 충무공정으로 명명한 것은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이 시기는 해군이 6·25전쟁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동서해상의 수많은 작전에 참가하여 승리를 거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59) 이후 매년 입관 및 수료하는 해군장병들은 충렬사와 한산도를 정례적으로 참배하게 되었다(金州植, 2008, 앞의 논문, 217쪽).

60) 「李忠武公誕生日에 海岸警備隊서 行事 多彩」, 『조선일보』, 1947년 4월 19일.

61) 임성채, 「6·25전쟁 중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이 한국해군력에 미친 영향 - 조직·부대 및 함정·장비를 중심으로」, 『군사』 7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233쪽.

62) 「第二忠武公號命名式」, 『조선일보』, 1951년 9월 3일.

이처럼 어려운 역경하에서 해군이 거둔 승리는 과거 충무공이 이룩한 그것에 비견될 정도로 가치가 큰 것으로 여겨졌음직하다. 또한 해군이 충무공의 후예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가 보여준 정신을 계승하여 부여받은 임무를 완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당대의 신문 기사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다. “‘충무공의 정신에 살고 충무공의 정신에 죽자’는 손원일 제독의 숭고한 염원 아래 굳게 뭉치어 잘 싸우고 있는 우리 해군이야말로 충무공정신의 계승자인 것이다.”<sup>63)</sup> 충무공의 후예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가 이룩한 연전 연승의 전통을 이어 나아가기 위하여 또 하나의 함정을 충무공정신으로 명명하였던 것이다.

#### 나. 해군사관학교의 교가와 교훈 제정

충무공 중심의 수군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은 비슷한 시기에 제정한 해군사관학교의 교가와 교훈을 통해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해군사관학교는 해방병단이 점차 체계를 잡게 되고, 장차 해군을 이끌어갈 장교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46년 1월 17일에 개교하였다. 개교시의 학교 명칭은 해군병학교(海軍兵學校)였다. 초대 교장은 손원일 제독이었다.<sup>64)</sup> 그러나 손 제독이 해방병단의 단장을 겸직하고 있었으므로 2개월여 뒤인 3월 15일에 사임하고, 김일병(金一秉) 부위(副尉 : 현재의 중위)가 3월 16일에 제2대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해사 교가의 제정은 김일병 교장이 1947년에 노산 이은상에게 작사를 청탁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이은상은 충무공 연구의 전문가로 해군과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관생도

63) 「오늘 11월 11日 海軍創設紀念日」, 『부산일보』, 1951년 11월 11일.

64) 당시 손원일 제독의 계급은 참령으로 현재의 소령 계급이었다.

들을 충무공의 후예로 칭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교가 작사의 청탁을 받아 1947년 6월에 완성본을 작성하여 김일병 교장에게 전달하였다. 김일병 교장은 이은상의 작사를 작곡하도록 저명한 작곡가들에게 요청하였다. 이 중에는 손 제독의 부인인 홍은혜가 작곡한 것도 포함되었다. 손 제독은 자신의 아내가 작곡에 응모했다는 사실을 알고 심사에서 제외시켰으면 하는 의사를 내비쳤다.<sup>65)</sup> 하지만 김일병 교장은 심사도 하지 않고 제외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 손 제독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사 방법은 해사 2기생들이 모두 둘러앉아 한 곡씩 차례로 불러 보고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곡을 뽑는 것이었다. 그 결과, 생도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홍은혜가 작곡한 곡이 제일 좋다 하여 교가로 채택되어지게 되었다.<sup>66)</sup>

해사의 교가는 크게 세 개의 절과 후렴으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 주목해볼 부분은 제3절의 내용이다. 가사를 보면, “청춘의 피가 끓는 대한의 아들, 두 손을 높이 들고 맹세하노니, 거룩한 충무공의 뒤를 받들어 조국의 한 바다를 지키오리다”로 서술되어 있다. 가사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해사의 교가에는 제정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아들인 사관생도들이 충무공의 뒤를 잇는 후예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교가는 젊은 사관생도들이 실천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도 말해주고 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맹세하였던 그 중요한 실천적 가치는 충무공 이순신이 조선의 바다를 지켜냈던 것처럼 사관생도들 역시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해사 교장이던 김일병 중위와 작사자인

65) 오진근·임성채, 2006, 앞의 책, 143~144쪽.

66) 孫元一, 「나의 履歷書」, 『한국일보』, 1976년 11월 24일. 홍은혜, 1990, 앞의 책, 139쪽.

이은상, 작곡자인 홍은혜 모두 충무공이 이룩한 수군의 전통을 교가라는 매개체를 빌어 계승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교가에 반영된 충무공 계승 노력은 해군사관학교 출신 졸업생들의 기생별 노래에도 잘 나타난다. 제1기생으로부터 3기생까지의 가사를 보면, ‘충무공 순국정신 이어가려고’, ‘충무의 젊은 해사 이 품 안에서’, ‘충무의 전통을 이어받들고’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한다.<sup>67)</sup> 또 5·7·9기생의 기생가의 가사를 보면, ‘충무공의 정신을 거울삼아서’, ‘충무공의 일사보국 붉은 충성’, ‘우리는 해군 남아 충무의 아들’이라는 구절 등이 나온다.<sup>68)</sup>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는 젊은 사관생도들 스스로 기생가를 만들어 동기생들간의 단결력을 결속시키고, 충무공을 중심으로 하는 수군전통을 계승하고자 하였음을 살필 수 있겠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해사 1기생의 졸업식이 1947년 2월 7일에 거행되었다는 점이다. 통상 기생가의 제정이 졸업에 임박하여 만들어지던 사정을 감안한다면 1기생가는 동년 7월에 제정된 교가보다도 먼저 만들어진 셈이 된다. 교가와 1기생가 중 어느 것이 먼저 만들어졌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여러 기생가의 가사에 충무공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은 주목받아 마땅할 것이다.

해사의 교훈에도 충무공의 수군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이념이 반영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1947년 초, 손원일 제독은 해군사관학교의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김일병 교장에게 미국 해군사관학교 시찰을 지시했다. 김일병 교장은 미국으로 떠나기 전 김석범(金錫範) 교두(敎頭)와 간부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이들에게 교훈 제정 등 교육체계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김일병 교장은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의 해군사관학교에 가서 교육체계 뿐만

67) 海軍士官學校, 『海軍士官學校 期生の 노래』, 1997, 2~4쪽.

68) 海軍士官學校, 1997, 위의 책, 6~10쪽.

아니라 교훈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교장이 귀국한 뒤 교육운영 위회는 약 10개월간의 연구와 검토를 거쳐 교훈을 건의하였다. 교장은 교육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한 교훈을 당시 조선해안경비대 총사령관이었던 손원일 제독의 승인을 받아 10월 21일에 공포하였다.<sup>69)</sup> 제정된 교훈은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 등 세 개의 덕목으로 구성되었다.

해사 교훈에서 주목되는 덕목은 세 번째 교훈인 희생하자의 내용이다. 희생하자의 교훈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구현은 아름다움(美)과 애국애족, 충성심, 인내극기와 바다 생활, 충무공정신과 조국 수호의 실천을 통해 달성된다.<sup>70)</sup> 희생하자라는 교훈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내용으로 충무공정신을 강조하고 있음이 흥미롭기만하다. 충무공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모호하지만, 그 뒤에 언급된 조국 수호와 연결시켜보면 그 의미는 분명해 보인다. 충무공이 이룩해낸 조국 수호의 위업을 젊은 사관생도 또한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로 삼고 그와 같은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줄 것을 당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손원일 제독이 창군초기부터 누차 강조해왔던 충무공정신을 해사의 교훈에 반영함으로써 사관생도들의 정체성을 함양시키고, 충무공을 핵심으로 하는 조선 수군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였음을 살필 수 있겠다.

69)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010, 19쪽.

70) 나머지 교훈의 목표와 실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리를 구하자는 교훈은 ‘진리’ 추구를 목표로 眞, 인격도야, 지력과 체력의 연마, 인생관의 정립을 실천한다. 허위를 버리자는 ‘정의’ 실현을 목표로 善, 긍지와 명예심, 정직과 정결, 세계관의 정립을 실천한다.

## 다. 한국해양사 편찬과 충무·한산·노량작전

충무공의 수군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은 해군 및 해양 관련 서적을 편찬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는 방향으로도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편찬된 주목할만한 서적은 『한국해양사』이다.<sup>71)</sup> 이 서적은 1951년 1·4후퇴 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의 피난지에서 몇 명의 사학자들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sup>72)</sup>, 1954년 11월 10일에 해군 본부 전사편찬관실(戰史編纂官室)에서 출간하였다.

『한국해양사』는 삼국시대로부터 고려, 조선 전후기, 근대 일제강점기까지의 해상활동과 수군활동, 해사 문제와 해운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서적에서 주목되는 점은 임진왜란기의 수군활동과 이순신이 수행한 해전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는 점이다. 거북선의 구조와 성능, 화포의 종류와 성능과 같은 수군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기반이 되는 전함과 무기 체계는 물론 옥포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한산도해전, 부산포해전, 칠천량해전, 명량해전, 노량해전 등 이순신이 참전하여 승첩을 거둔 모든 해전을 망라하였다. 내용은 학술적인 성격이 강하고 풍부하게 구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적은 이전 시기에 출판된 충무공 서적과 비교하여 가장 해전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sup>73)</sup> 비록 서문에서 전란의 와중에서 대부분의 사료를 소실당하여 그 수집이 매우 곤란하였던 것처럼 언급하고 있으나 실상은 당시에 출간된 충무공과 관련한 서적 중에서는

71)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韓國海洋史』, 1954. 근래 이 책을 한글로 알기 쉽게 번역한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정진술·이민웅·신성재·최영호, 『다시 보는 한국해양사』, 신서원, 2008.

72) 편찬 작업에는 1951년 5월 13일에 해군 촉탁 군무원으로 들어온 육당 최남선도 참가하였다.

73) 崔永禧, 「忠武公에 關한 文獻 - 忠武公은 어떻게 理解되고 있는가」, 『制海』 11호, 海軍士官學校, 1957, 70~71쪽.

가장 많은 사료를 인용하고 있다.<sup>74)</sup> 이러한 사실은 서적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목적을 반영하였음을 보여준다.

『한국해양사』가 간행된 시기는 6·25전쟁이 끝난 뒤인 1954년이었다. 손원일 제독이 1953년에 제5대 국방부장관에 취임했던 사실을<sup>75)</sup> 감안해볼 때 손제독이 이 서적의 편찬 및 간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서적 편찬 작업이 처음 시작되던 1951년 1·4후퇴시부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52년까지 총참모장으로서 해군을 지휘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마도 그것은 『한국해양사』와 같은 전문 해양서적 편찬을 통하여 충무공을 비롯한 역대 수군장수들이 보여준 해양 진출과 개척 정신을 선양하는 한편, 이들이 이룩한 업적을 그 후예들로 하여금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염원을 반영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해당 서적의 편찬과는 관련성이 적지만, 손원일 제독이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의 연두사에서 ‘이 원수 없앨 수만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此讐若除 死即無憾)’라며 충무공의 충혼을 받들 것을 강조한 기록이<sup>76)</sup> 주목된다. 서적 편찬 작업이 한창이던 시기에 나타나는 손제독의 충무공 유훈에 대한 언급은 그 후예들의 수군전통 계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충무공과 같은 역사적 위인에 대한 숭배와 계승의식은 책이 간행되던 1954년 당시 해군 총참모장으로 재직 중이던 정궁모 제독의

74) 崔永禧, 1957, 위의 논문, 71쪽.

75) 손원일 제독이 국방부장관에 취임한 것은 1953년 6월 30일로 당시 나이는 40세였다.

76) 孫元一, 「年頭辭」, 『海軍』 제2권 제1호, 海軍恤兵會出版部, 1952, 9쪽. 연두사가 있던 동년 4월 13일에 진해 북원로터리에서 충무공 동상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해군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충무공 선양 및 추모의 글을 기고받아 『해군』 특집호를 발행하였다.

서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고구려 시대에 살수대첩의 을지문덕, 신라시대에 해상 웅비의 큰 뜻을 품었던 장보고, 조선 시대에 세계적으로 위대한 해군장수 이순신 같은 인물들, 즉 물을 이용하고 바다를 개척하며, 함선을 건조하고 바다에서 싸움에 유능한 영걸들이 연달아 배출되었으나 근대와 현대에 해양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것은 천추의 한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sup>77)</sup> 을지문덕으로부터 장보고 및 충무공으로 이어지는 영웅호걸들의 해양수호 활동과 해양개척 정신을 근현대로 접어들면서 이어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강한 아쉬움과 함께 이를 반성적 교훈으로 삼아 이들이 이룩하였던 수군의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한편 6·25전쟁기에 해군이 수행한 몇몇 작전을 통해서도 충무공이 남긴 수군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은 적극 전개되었다. 6·25전쟁기에 해군은 전략 전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역별로 다양한 명칭을 띤 해군작전을 수행하였다.<sup>78)</sup> 이 중 충무공의 수군전통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작전은 충무작전, 한산작전, 노량작전이다. 먼저 충무작전은 1952년 4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서해안 강화도 옹진반도를 중심으로 장산곶(長山串) 북방과 중방리(中方里) 부근, 덕적도에 이르는 주요 도서를 경비하는 임무를 수행한 작전이었다.<sup>79)</sup> 작전의 총 지휘는 UN 극동함대 서해봉쇄전대의 지휘하에 수행되었다. 한국 해군과 유엔군 해군에 의해 해양통제권이 장악된 상태였으므로 적의 저항은 소강 상태였으나, 1952년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702함의 창린도(昌麟島) 탈환

77)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1954, 위의 책 서문, 11쪽.

78) 6·25전쟁 중에 수행된 다양한 작전의 명칭은 임성채, 2009, 앞의 논문, 220쪽 표5 참조.

79) 海軍本部 政訓監室, 『大韓民國海軍史 作戰篇』 제2집, 1958, 47~53쪽.

작전은 특히 치열했다.<sup>80)</sup>

한산작전은 남해 방면에서 1951년 10월부터 목포-제주-포항을 연결하는 해상방위선 일대의 주요 항로에서 수행한 작전으로 밀수선 취제와 일본 어선 취제, 경비 위주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301정을 비롯하여 수 척의 경비정이 교대하면서 경비작전을 수행하였다. 이 작전은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일명 이승만 라인 혹은 평화선)’을 발표함에<sup>81)</sup> 따라 해군이 관할해야 하는 해역을 침범하는 선박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한 입안된 작전으로 1952년 7월부터 동년 12월 말까지 계속되었다.<sup>82)</sup> 전투행위는 없었지만, 301호정이 9월 2일 제주도 북방에서 주권선을 불법 침입하여 어로 중인 일본 어선 수십 척을 발견하여 퇴거시키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sup>83)</sup>

노랑작전은 남해안 일대에서 수행된 해상작전의 하나로서, 그 임무는 전시 경제의 궁핍한 사정을 기회로 일본 및 중국 등지를 대상으로 밀수 행위를 자행하는 선박들을 단속하는 한편 이들을 이용하여 침투를 기도하는 적들의 간첩활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작전이다. 작전은 수시로 지시된 구역을 저속으로 순항하면서 부근에 항해 중인 선박들을 취제하고 밀수선임을 확인시에는 나포하여 본부에 보고하고 정찰정은 지정 구역을 정찰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sup>84)</sup> 경비 임무는 308호정 및 309호정이 주로 실시하였으며, 한산작전과 같이 평화선 내에서 불법 조업하는 일본

80) 해군본부, 2010, 앞의 책, 432쪽.

81) 배규성, 「이승만 라인(평화선)의 재고찰 - 해양법 발전에서의 의의와 독도 문제에서의 의미」, 『日本文化研究』 47, 동아시아 일본학회, 2013, 227~229쪽.

82) 海軍本部 政訓監室, 1958, 위의 책, 67~68쪽.

83) 위와 같음.

84) 海軍本部 政訓監室, 1958, 위의 책, 70~72쪽.

선박들을 퇴거 조치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작전을 통하여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벌이던 일본 어선들을 퇴출하였으며, 밀수선들을 색출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소개한 작전은 충무공이 임진왜란기에 서남해에서 일본 수군과 싸워 승리한 해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군이 6·25전쟁기에 왜 이러한 명칭의 작전명을 제정하였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명명된 해전 모두 충무공이 헌신하여 싸워 승리를 거둔 해전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충무공이 일본 수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고 국가를 보위하였던 것처럼 해군 역시 충무공과 같이 싸워 조국의 바다를 지켜야할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다. 작전 명칭이 제정되던 시기가 6·25전쟁이 발발하여 국가의 안위가 위태롭던 상황임을 생각해 보면 충무공이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전란을 승리로 이끈 주요 해전은 당시의 해군이 수행해야 하는 작전 명칭으로 제정되기에 적합하였을 것이다. 전쟁기에 한국 해군을 총지휘하던 손원일 제독이 그러한 목적을 반영하여 제정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고 생각된다. 작전 명칭을 통해 보더라도 손원일 제독이 충무공이 쌓은 무훈과 그가 수립해 놓은 조선 수군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 4. 맺음말

손원일 제독이 충무공 중심의 수군전통을 계승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해군이 창설되는 시점과 비교하여 가장 멀게는 충무공 사후 논공행상 과정에서의 평가, 인조대부터 정조시대로 이어지는 현창 사업, 이순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재평가 작업 등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온 결과에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깝게는 해방 이전 시기에 해당하는, 즉 일제강점하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sup>85)</sup> 특히 일제 강점하에서의 노력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고대로부터 이어지고 있던 전통적 가치가 붕괴되고, 민족의 정체성마저 말살될뻔한 시기였기에 이 시기를 중심으로 추진된 수군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일제강점기의 계승 노력은 이순신 전기를 저술하는 방식을 통해 표출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민족주의 사학자인 신채호(申采浩)의 『수군제일위인전(水軍第一偉人傳)』을 들 수 있다.<sup>86)</sup> 이 책은 1908년 5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에 연재된 것으로 모두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채호가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은 1907년 중국 양계초(梁啓超)의 『이태리건국삼걸전(伊太利建國三傑傳)』을 번역한 후 곧이어 한국 역사상의

85) 이순신의 사후 평가와 인식의 변천은 노영구, 「역사 속의 이순신 인식」, 『역사비평』 69, 역사문제연구소, 2004; 오종록, 「보통 장수에서 구국의 영웅으로 - 조선 후기 이순신에 대한 평가」, 『내일을 여는 역사』 권18, 2004; 정두희, 「이순신에 대한 기억의 역사와 역사화 - 4백 년간 이어진 이순신 담론의 계보학」, 『임진왜란 동북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이민웅, 『이순신 평전』, 성안당, 2012 참조.

86)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丹齋申采浩全集』 中(改訂版), 螢雪出版社, 1977, 357~414쪽 참조.

세 영웅으로 을지문덕, 이순신, 최영을 뽑아 그들의 전기를 저술하여 청년 학생과 민중에게 국민적 영웅이 되어 투쟁할 것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었다.<sup>87)</sup>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이순신을 영국의 해군제독 넬슨과 비교하여 훨씬 열악한 싸움에서도 승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순신을 더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당시 대한제국의 국력이 미약하여 이를 세계에 알리지 못한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위대성을 국민에게 밝히고자 책을 저술하였다고 한다. 또 하나는 거북선을 세계 철갑선의 원조로 높이 평가한 점이다. 신채호의 이러한 인식은 남북전쟁을 전후한 19세기 후반기에 서양에서 강철로 군함을 건조하였던 시대적 추이를 고려해 볼 때 부국강병을 통해 국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시대적 인식의 소산이었음을 반영한다.<sup>88)</sup>

신채호에 이어 박은식(朴殷植) 또한 저술활동을 통해 수군 역사의 계승을 표방하였다. 『이순신전』이 그것이다. 이 책은 1915년 중국 상하이에서 저술되었다. 책의 부제인 “고금수군의 제일위인 세계철함의 발명시조”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은 이순신의 위대성과 거북선의 독창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순신은 백전백승의 명장이면서 동시에 지혜와 용기, 충성과 효성, 공평무사와 지성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 등 온전한 인간형으로 그려지고 있다. 철갑선인 거북선으로 멀리 가서 해양 패권을 장악했으면 조선은 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원망과 안타까움을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 민족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이순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신채호와 마찬가지로

87) 배일용, 『박은식과 신채호 사상의 비교연구』, 景仁文化社, 2002, 57쪽.

88) 노영구, 2004, 위의 논문, 348~349쪽.

가지로 이순신과 넬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상세히 기술하면서 이순신이 넬슨보다 더 위대한 영웅임을 증명하였다.<sup>89)</sup>

박은식의 이러한 평가는 이순신을 구국의 영웅으로 현양시키는 한편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그 후손들이 충무공의 호국정신을 계승해줄 것을 염원한 것이었다. 박은식의 『이순신전』은 이후의 충무공 계승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다. 영창서관(永昌書館)이 1925년에 『이순신실기』를 발행하는가 하면 1927년에는 회동서관(匯東書館)이 『이순신전』을 간행하였다. 1931년에는 이윤재(李允宰)가 『성웅이순신(聖雄李舜臣)』을 집필하였고<sup>90)</sup>, 1946년에는 이은상이 충무공 일대기를 출간하였다.<sup>91)</sup> 신채호로부터 박은식으로 이어지는 충무공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그 뒷 시기에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케 하는 증거들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은상이 해방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충무공 전기를 출간한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은상은 1947년 해군사관학교 교가를 제정하던 당시에 사관생도들이 충무공의 후예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거룩한 충무공의 뒤를 받들어’라는 문구를 가사의 내용으로 작사한 인물이다. 1946년 충무공 실기의 출간과 1947년 해사 교가 제정시 사관생도가 충무공의 후예임을 나타내는 가사의 표현,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선 수군에 대한 역사인식과 충무공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식이 일제강점기에도 단절됨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신채호로부터 박은식, 이윤재, 이은상 등으로 이어지는 이순신

89) 노영구, 2004, 위의 논문, 350쪽. 『이순신전』의 전문 분석은 朴現圭·權赫泰, 「朴殷植 『李舜臣傳』의 全文 발굴과 분석」, 『이순신연구논총』 제1권 1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3 참조.

90) 李允宰, 『聖雄李舜臣』, 漢城圖書株式會社, 1931.

91) 李殷相, 『李忠武公一代記』, 國學圖書出版館, 1946.

선양과 저술활동이 실제 손원일의 수군 역사 계승과 창군될 해군의 전통 확립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와 기록 등을 통해 볼 때 그 연결 가능성은 1919년 임시정부의정원(臨時政府議政院) 의장이었던 손원일의 부친인 손정도(孫貞道) 목사와 도산 안창호(安昌浩)와의 관계, 아버지 손정도 목사의 가르침과 유훈 등을 통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유추해 봄직하다.

도산 안창호와 손정도는 매우 각별한 사이였다. 이렇게 가깝게 지낸 도산과 손정도는 함께 임정원 요원들의 파당 싸움을 걱정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민족의 대동단결을 외치고 다녔고, 어떻게 하면 임정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 국력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에 노력을 기울였다.<sup>92)</sup> 독립 운동가이자 애국계몽주의자로 명망이 높았던 안창호의 역사 인식과 사상은 손정도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도산의 사상과 역사 인식, 독립에 대한 열망과 의지 등은 자연스럽게 손정도에게 이어졌을 것이다. 손정도가 도산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기록한 손원일 제독의 회고록이 이를 짐작케한다.<sup>93)</sup>

안창호의 독립 사상과 역사 인식은 아버지인 손정도를 거쳐 아들인 손원일 제독의 역사관과 국가관, 세계관의 형성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더구나 손 제독은 임종을 앞둔 안창호를 문병한 적이 있고, 그로부터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을 듣기도 했다. 아버지인 손정도 목사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지방색을 가르는 파당 싸움을 말아야 한다”<sup>94)</sup>는 말을 강조하였고, 독립운동을

92) 孫元一, 「나의 履歷書」, 『한국일보』, 1976년 10월 12일.

93) 위와 같음.

94) 孫元一, 「나의 履歷書」, 『한국일보』, 1976년 10월 14일.

유업으로 남겼다.<sup>95)</sup> 손원일 제독은 신채호와 박은식, 안창호 등으로 연결되는 민족주의 사학자와 계몽사상가들로부터 독립 사상과 역사 계승의식을 배웠을 것이다. 아버지로부터도 지나간 역사의 교훈과 독립정신을 체득하였을 것이다. 길림의 문광(文光) 중학교 2학년 재학시에 지었다고 하는 나라를 잃고 살아야 하는 설움을 표현한 노래는<sup>96)</sup> 그의 성숙된 자의식과 독립에의 염원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시대적 조건과 분위기 속에서 손원일 제독이 민족의 독립을 보전해준 조선 수군의 위업을 선양하고 충무공을 중심으로 하는 수군전통을 계승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해방을 맞이함과 동시에 손원일 제독이 충무공을 계승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충무공정신을 창군될 해군이 실천해야 할 이념이자 지침으로 표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가능하였다.

(원고투고일 : 2014.4.1, 심사수정일 : 2014.5.14, 게재확정일 : 2014.5.20)

주제어 : 손원일, 해군, 충무공, 이순신, 수군전통

95) 孫元一, 「나의 履歷書」, 『한국일보』, 1976년 11월 7일.

96) 김창수·김승일, 『해석 손정도의 생애와 사상』, 넥서스, 1999, 415~417쪽.

<ABSTRACT>

## Admiral Son Won-II's Navy Building and Succession Activities of Naval Tradition

- focused on succession centered on Choongmugong Yi Sun-sin -

Shin, Seong Jae

This paper's main objective is to focus on the fact that admiral Son Won-il, nicknamed 'father of the modern Korean navy' has succeeded the naval tradition of legendary Yi Sun-sin in the process of founding the navy and to understand such procedures, as well as to extract its historical significance.

Currently, study on admiral Son ranges from his biography to philosophy on military foundation to leadership, and expanding. However, although the modern Korean navy insists that it is the direct recipient of admiral Yi's marine legacy, there is hardly any organized research on how such naval tradition has been established over the years. This question became the motive for my article.

Admiral Son Won-il organized Haesadae in August of 1946, so as to champion that navy members are indeed the descendants of admiral Yi. Since the founding of Haebangbaengdan, Son proclaimed 'Choongmugong spirit' as the ultimate ideology and doctrine of the Korean navy, so that it can surely claim that Yi is the benefactor of the tradition. This spirit was firmly established as one of the indicators to execute Son's navy-foundation motto : 'to sacrifice myself for the sake of the nation and the people' in 1948.

The reason for admiral Son's Yi-succeeding policy was because of Son's vision that naval power will play a dominant role in guaranteeing homeland's independence as well as to determine the future of this

nation. Yi sun-sin was naturally chosen as the perfect model for the construction of the modern Korean navy since Yi literally saved the Joseon dynasty from the Hideyoshi invasion and thereby preserved the independent status of the country, not to mention the fact that Yi's powerful navy actually controlled the maritimes of the southwest.

Son has conducted various activities to fulfill his mission to succeed Yi's heritage. Son's most inspiring achievement was naming a post-liberation new ship as 'Choongmugongjeong'. He also made an effort to include Choongmugong-oriented traditional spirit in the formation of school song and motto. One such example is that a phrase 'fulfilling the great teachings of Choongmugong', which implies that cadets are the virtual military descendants of admiral Yi, is reflected in the words of the school song. In one of the Naval Academy's motto 'sacrifice', 'Choongmugong spirit and defending the homeland' is also included to reflect the same purpose. Admiral Son published the book 'History of Korean Maritime Operations' in 1951, and named the operations of the Korean War as respectively Choongmu, Hansan, and Noryang, of which the latter is in accordance of the aforementioned motives.

Admiral Son's devotion to emphasize Choongmugong to be the ultimate symbol of naval tradition is indeed attributed to series of endeavors made by some Korean patriots during the early modern age. Especially, nationalist historians, independence fighters, and Son's own father have left an enduring mark on his view of history and nation. Admiral Son's post-liberation career to place Choongmugong as the core of naval tradition is rooted in these historical backgrounds.

Key Words : Son Won-il, navy, Choongmugong, Yi Sun-sin, naval tradition

